

소비자

車 보험료 다이렉트로 10% 저렴하게

인터넷·전화 통해 가입, 설계사 수수료 없어

무사고 땀 할인 혜택 주는 기존 보험사 유리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보험료다. 소멸성으로 보장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면서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보험료 할인받는 방법=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다이렉트 차 보험의 경우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차 보험보다는 10% 가량 저렴하다.

오프라인 차 보험과 동일한 서비스와 보장내용을 제공하면서 인터넷이

나 전화를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설계사 수수료가 빠져 보험료가 더 저렴해진다는 것이 다이렉트 보험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 다이렉트 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 등 지급여력을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오프라인 차 보험 가입자가 만기 전에 다이렉트 차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만기 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사고 운전 경력자는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되며,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되기 때문이다.

주행거리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행거리연동특약(속칭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7000km 이하)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로 일제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의 연령대를 '30세 이상', '35세 이상' 등으로 설정하고,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해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해도 보험료를 3~5% 할인해 주는 보험사들도 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http://ccs.knia.or.kr/index.jsp>)에서 본인의 가입조건을 입력해보고 최저가로 조회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자동차 보험 가입요령=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모집자로부터 반드시 보험료 영수증과 보험청약사 사본 등 2가지 서류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보험에 가입한 지 2주쯤 지나면 우편으로 보험증권을 받게 되는데 이 증서를 받으면 보험청약사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보험 모집자나 보험사에 연락해 틀린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청약한 날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철회 시 가입자가 보험사로 직접 찾아가 보험가입 시 받은 청약서와 보험료 영수증을 돌려줘야 하므로 이 둘은 꼭 챙겨놔야 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카드 세테크

최근 외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칼 마르크스의 두상이 새겨진 신용카드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 퍼지고 있는 마르크스에 대한 향수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카드 디자인에도 우리의 생활과 시대상이 반영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색다른 디자인의 신용카드들이 많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 시각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당연히 카드도 예쁜 것이 각광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디자인에 민감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

집이 생기기 않는 소재인 리퀴드 메탈 등 기존 플라스틱에서 소재를 혁신한 카드들도 등장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 선생의 디자인을 입힌 카드가 출시된 적이 있다. 최근 신한 카드는 미술 작품을 카드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을 출시했다. 신예작가와 아티스트 그룹의 미술 작품 70점 중 고객이 원하는 작품으로 카드를 디자인 해주는 것인데, 카드를 통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획일적인 카드 디자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내 카드, 내 맘대로 디자인한다

기 위해 카드사들도 바빠서 대응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디자인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카드가 보편화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서비스 경쟁과 함께 디자인 경쟁도 시작될 것이다. 예쁘고 화려하게 디자인한 카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됐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평면적인 디자인의 차별성에서 벗어나 프리폼(Free Form) 카드처럼 모양을 아예 바꿔버린 카드들도 등장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족집값 카드나 항공기 소재로 쓰이는 하이퍼 두랄루민, 흙

유일무이한 디자인의 카드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이 찍은 사진을 플레이트에 입혀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디자인에 활용한 카드도 있다. 최근 끝난 2012 런던 올림픽의 공식 파트너사인 비자카드와 제휴해 런던 올림픽 공식 엠블럼과 영국 국회의사당 시계탑인 '빅벤'이 디자인된 올림픽 카드가 그러한 사례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개성 있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시대에 걸맞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의 카드를 하나 골라 보는 건 어떨까?



한중우 <신한카드 광주지점장>

소비자 10명 중 7명 "수입식품 못믿겠다"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수입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비자 503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 70.8%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89.7%로 가장 컸고, 일본산과 미국산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각

각 67.2%, 62.6%였다. 유럽산(23.1%)과 호주·뉴질랜드산(16.9%)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입산 먹거리 중 불안한 품목으로 축산물(51.2%)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산물(40.7%), 수산물(28.1%), 건강기능식품(13.4%), 유아용품(12.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64.8%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 식품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고메시지 보내고 미리 견인하고

집중호우로 차량 5000여대 침수... 손보사 보상

폭풍 뒤에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대규모 차량 침수가 발생하자 손해보험사에 보상이 걸렸다. 최근 집중 호우로 5000여대가 침수되는 등 자동차 보험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이번 주 들어 폭우가

강타하자 공동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손보사는 고객에 폭우 관련 경고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고 침수 예상지역에서 자동차를 미리 견인하는 조치에 나섰다.

손보사들의 노력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최근 군산지역에는 40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4000여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돼 300여억원의 손해가 났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도 14일부터 폭우가 내려 1000여대 이상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차량의 침수 피해를 막으려던 물웅덩이를 가능한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를 넣고 시속 10~20km로 통과하라고 권고했다.

물웅덩이를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도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군산의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주인들이 차량 내부를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범퍼 높이만큼 물이 찬 길을 운전할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 차량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피해 상담 사유



(출처: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스마트폰 피해 급증

전년 대비 2배 넘어

앱결제 71% 가장 많아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관련 소비자 분쟁의 대다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관련 피해 상담도 급증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앱' 관련 피해 상담건수 중 이용자가 확인된 35건 중 미성년자인 경우가 28건으로 전체 80%에 달했다.

또 2009년 0건, 2010년 1건에 불과했던 상담건수도 지난해 55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2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건에서 19건(211%)이나 급증했다.

상담건수 10건 중 7건은 결제요금 문제로 인한 환불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별로는 전체 84건 중 '가격·요금'(29.8%), '부당행위'(21.4%), '청약철회'(20.2%)와 같이 앱을 구매해 이용 중 발생한 결제요금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71.4%(6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광주본부는 스마트폰 구매 결제시스템이 간단해 일부 청소년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27건, 광주 26건, 전북 25건, 제주 6건으로 전남지역의 피해상담 신청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상무흥어애집
서구 쌍촌동 67번지 상무시장입구
흥어애 전문점
대표 김주현
☎ (062) 372-3399

태화오리탕
북구 유동 102-32번지 오리탕 골목
흥어, 오리로스
오리탕, 오리불고기
☎ (062) 529-3434

수타면전문점청찬
북구 각화동 각화주공@ 미래병원옆
수타짜장, 수타해물짬뽕, 수타해물우동, 짬뽕밥
해물모듬생반, 짜장, 아채볶음밥, 탕수육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 262-5392

최첨단보안시스템
북구 계림동 청송빌딩 401호
핸드폰, 정수기
약정할부금 부담없이 이용하세요
☎ 062) 529-2112

청해진종합상사
서구 양동 금호1차 정문앞
APT사시전문, 방충망, 방범창, 하이
샷시, 지바리 대문, 조립식건축
실내칸막이, 집철일절
☎ 062) 368-5440

양림정
남구 양림동 학간초와1(독고병원)사이 새마을금고옆
현우공정, 공정기, 공정전용, 공정복음, 담양식물갈비
생선김밥, 오리로스, 오리탕, 단체예약환영
☎ (062) 654-2579

편안한침구우먼로드
중흥3동 동부시장 건너편
이불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대표 김향남
☎ (062) 524-8737

송림화랑
동구 공동 예술거리 원불교정문앞
서화매매, 각종표구, 주문제작전문
대표 양원호
☎ (062) 232-8716

황금주차장
동구 황금동 구 그랜드호텔 앞
월차, 년차 주차환영,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소형차, 주차비할인
☎ (062) 222-2077

심청골추어탕
북구 유동 동우당문과DCC이트사이
추어탕, 생태탕, 추어튀김, 닭매운탕전문
단체예약순남환영
대표 신형돈
☎ (062) 251-1500

(유)주호산업건설
북구 유동동 운암시장상가 2층
토목, 건축, 조립식판별
옥실리모델링, 실내외장식, 집수리전문
대표 정종원
☎ (062) 251-0204

배호가족모임광주지부
북구 유동동 운암시장상가 2층
불새출의가수 배호가족
남, 여 회원수시모집
☎ (010) 7520-1112

백향정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입구 무등피크 2차(에동)상업
웃담, 오리백숙, 한방탕, 생오리소금구이, 오리불고기
오리주물럭, 점심특선, 춘천닭갈비, 삼계탕, 냉면
☎ (062) 675-2055

들깨랑단호박죽
동구 학동 732-5 학동평화헌선 연학동성당앞
검정콩국수, 들깨갈국수
팔칼국수, 동지죽전문
☎ (062) 433-4913

수초떡갈비
남구 금동 전대병원오거리에서 천변쪽
생태탕, 갈치조림
추어탕전문
☎ (062) 224-0092

동아종합철물자재
동구 방림동 533-2
샷시, 방수, 페인트
설비및APT리모델링, 누수탐지전문
☎ (062) 654-1105

영암마트각화점
북구 각화동 각화주공APT정문앞
청과, 아채, 정육, 수산, 공산, 양곡산지직
송만매, 구매전환시 신속배달
대표 유용현
☎ (062) 252-1472

에덴다방
동구 대인동 32-15 동부소방서 사거리
더점생강죽, 최죽, 생화차, 토미토스커피등
대표 박경식
☎ (010) 5732-3133

서광홍상사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 사거리
홍삼, 인삼 대리점
대표 서은섭
☎ (062) 224-3366

고인문학의원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앞편
원장 고인문
☎ (062) 232-1007

수타면전문점청찬
북구 각화동 각화주공@ 미래병원옆
수타짜장, 수타해물짬뽕, 수타해물우동, 짬뽕밥
해물모듬생반, 짜장, 아채볶음밥, 탕수육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 262-5392